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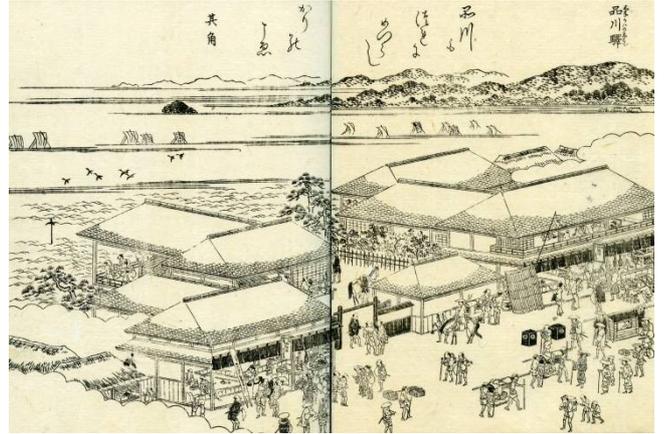
●시나가와 역사과 해설지

시나가와 역참

도카이도 가도의 첫 번째 역참

1601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와 교토·오사카를 잇는 도카이도 가도에 역참을 설치하여, 짐을 운반하기 위한 사람과 말을 상비시켰습니다. 시나가와 역참은 하루에 인부 100명과 말 100마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마을이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짐은 '도이야바'라는 장소에서 옮겨 실어, 다음 역참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운반했습니다.

시나가와 역참은 메구로가와 강을 경계로 하여 기타시나가와 역참과 미나미시나가와 역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722년, 기타시나가와 역참의 북쪽에 보행 역참이 추가되어, 이 세 역참에서 역참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보행 역참(新宿)이라는 명칭은 짐을 운반하는 사람과 말 중 사람만을 제공하는 새로운 역참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시나가와 역참(출처: 『에도의 명소를 그린 지지(地誌)』)

시나가와 역참은 도카이도 가도에 있어 에도에서 헤아려 첫 번째 역참이었으므로 도카이도 가도를 지나 에도에서 나오는 사람 또는 에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나가와 역참을 거쳤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여인숙과 찻집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중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이 있는 여인숙도 있었는데, 1843년에는 92채가 있었습니다.



▲도카이도 가도를 그린 그림(시나가와 부분) 오치코치 도인 작 히시카와 모로노부 그림

숙박시설

역참마을의 숙박시설로는 혼진, 와키혼진, 하타고야, 기친야도가 있었습니다.

혼진(本陣)은 다이묘나 귀족 등 신분이 높은 자가 이용한 시설로, 시나가와 역참에 1 채가 있었습니다.

와키혼진(脇本陣)은 혼진을 사용할 수 없을 때의 예비 시설로, 시나가와 역참에 2 채가 있었습니다.

하타고야(旅籠屋), 기친야도(木賃宿)는 주로 일반 여행객이 이용한 여인숙입니다.

하타고야는 식사가 제공되었으나, 기친야도는 식재료를 들고 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18 세기 이후에는 기친야도가 줄어들어, 많은 이들이 하타고야를 이용했습니다.

시나가와 역참의 관리, 나누시(名主)

나누시는 마을의 행정 전반을 맡아보던 관리직으로, 주로 그 지역의 유력자가 대대로 직을 맡았습니다. 시나가와 역참에도 나누시를 두었는데, 미나미시나가와 역참의



▲혼진의 구조

가가타 가문, 기타시나가와 역참의 우다가와 가문, 미나미시나가와 역참에 속한 미나미시나가와 료시마치의 오시마 가문이 각각 단독으로 나누시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보행 역참은 이다 가문과 나무라 가문이 맡았는데, 훗날 이다 가문이 단독으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우다가와 가문은 오타 도칸이 에도성을 축성함에 따라 1457 년에 시나가와에 왔다고 합니다. 또한 우다가와 가문은 이다 가문 및 기타시나가와 역참의 수호 신사인 기타시나가와 이나리샤(지금의 시나가와 신사)의 신관인 고이즈미 가문과 친척 관계입니다.

가가타 가문의 뿌리는 16 세기 후반에

시나가와에서 활약한 도리노우미 씨족이며,

훗날 가가타로 성을 바꿨다고 합니다.



▲에도 명소 고텐야마의 꽃놀이 우타가와 히로시게(제 1 대) 작